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가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이인수

- 서희선생기념사업회 창립선언문 중



서희기념

지은이

「李仁洙」

- 1947년생
- 이천시지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 제1회 이천시 문화상
- 경기도 문화상 수상
- 現,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 現, 국사편찬위원회 지방사료조사위원
- 現,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現, 서희선생기념사업회 상임위원

이천문화원

이천문화원
서희선생기념사업회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이인수

이천문화원
서희선생기념사업회



서희선생기념사업회

창립선언문

고려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 서희(徐熙) 선생은 우리 고장 이천시가 자랑하는 민족사의 큰 별로 효양산 정기를 받고 이천에서 태어났다.

성종때 거란의 80만 대군이 쳐들어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적의 위세에 눌린 임금과 조정 신하들은 적의 요구대로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굴욕적인 화친을 맺으려 했다. 이때 선생께서 앞장서서 화친을 반대하고 혼자 몸으로 호랑이 굴과도 같은 적진에 들어가 적장과 담판함으로써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를 구하셨다. 그 후로도 설새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북진개혁에 나서서 영토를 넓히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데 힘쓰셨으니,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도 선생을 가리켜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라 칭송하였다. 이처럼 선생께서는 탁월한 지혜와 용기있는 결단으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국난극복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다. 또한 우리 역사상 그 짝을 찾아보기 힘든 자주정신에 투철한 외교관이며, 문무의 비범한 자질을 갖춘 뛰어난 전략가요 청렴 강직한 성품으로 나라를 위해서는 일신의安危를 돌보지 않았던 충신이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남북이 아직도 서로 대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

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전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왜곡을 둘러싼 마찰로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역사마저 남에 나라로 빼앗길 판이다. 뛰어난 정세 판단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건국이념을 앞장서 실현코자했던 선생의 자주외교가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제 선생의 숭고한 정신과 우리 민족사에 남긴 불멸의 업적을 널리 선양하고자 이천시의 각 시민 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서희선생기념사업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오늘의 기념상 건립은 그 시작이며 앞으로 뜻 있는 많은 선양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오늘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자라나는 이 땅의 꿈나무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서희선생 기념사업회의 창립을 선언한다.

2004년 5월 21일

이 천 문 화 원 장 이 상 구
서희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차례

창립선언문 · 4

책머리에 · 7

은혜깊은 사슴 · 11

서희선생의 가계 · 18

서희선생의 생애 · 25

고려의 북방정책과 거란 · 33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침입 · 41

거란의 1차 침입과 서희 · 48

적장과의 담판 · 57

북진개척에 나선 서희 · 64

고려의 큰별이 지다 · 70

서희선생 약력

서희선생 찬가

서희선생 관련사료

서희선생기념사업회 위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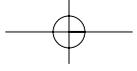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책머리에’



가 ,

가

가



1999

가

1000

가

가

가

가

가

(福

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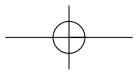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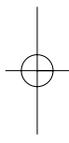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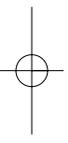
가

12 ,

80

가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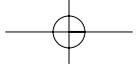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
가 ,
.”

(箕準)

가 ,
가
(東國與地勝覽)



▲ 효양산에 있는 서씨 시조 서신일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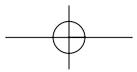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서희 선생의 가계(家系)’



가
 (王建) 19 (936)
 (神劍)
 가
 , 가
 가
 (徐穆)
 ,
 가 가 , (利川)

,
 .
 가
 (徐弼)
 가
 80
 (徐弼) 가 (內議令)²⁾
 ,
 , 가
 (光宗)

2) (內議令) - (內議省) 가



“ , ”

(治亂)³⁾

?”

가

“ 가

.”

(歸化)

3) (治亂) -

16 (965) 65 ,

(三中大匡太師內史令)

(貞敏公)⁴⁾

80

(徐熙)

(徐訥),

(徐維傑),

(徐偉)⁵⁾가

(成宗) 15 (996)

(靖宗)

(內史令)

8 (1016)

(刑部侍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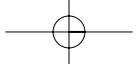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가

4) (諡號) -

가 ,

5) (徐偉) -

(徐維偉)



(地藏寺) 가

9 (1043) (元肅) , (廟庭) (配享)⁶⁾ 가

3 가

가

가

(兩界) (兵馬使)

(左僕射)⁷⁾

(兵部尙書)

(判三司事)¹⁰⁾

(徐靖)

(平章事)⁸⁾

⁹⁾ (徐恭)

(西京 -)

6) 가 가 , 가 가

(毅宗)

24 (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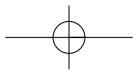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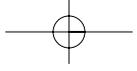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7) (左僕射) - (尙書省) 2

8) (平章事) - (中書) (門下省) 2

9) (玄孫) -

10) (判三司事) - (三司) 1





가

(重房)¹¹⁾

22

(贊成)

(徐遠), 가

(徐甄),

(徐選),

(大司成)

(徐岡)

‘서희 선생의 생애’



942)¹²⁾

(福川)

25 (

(廉允)

(福

河川)

가

가

가

(光宗) 11 (960)

18

(甲科)

(廣評員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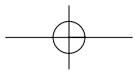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12)

1

가

26 (943)

11) (重房) -



郎)

23 (972),

(內議侍郎)

가

31

(太祖)가

(檢校兵部尙書)



▲ 잣머리 성황당 - 안산시 성곡동에 있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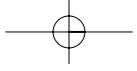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가

“

가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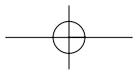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가
가
가
가
1984 10

가

宗) 가 가 (成

가

”



(永明寺)
가

가

(內史侍郎)

(供賓令)

(鄭又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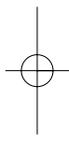
가

“

?”

가

“



(監察御使)

42 2 (982) (兵官御
事)가 (內史侍郎)

12 (993), 80
(中軍使)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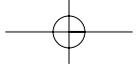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 서희선생의 위패를 모신 승의전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가 (蕭恒德)
80 가

52

가



(穆宗) 1 (998) 7 27 , 55

(國葬)

(章威公)

(德宗) 2 (1033) (太師)

18 (1027)

(明宗) (李寬義), (金安國)
(雪峰書院)¹³⁾

‘고려의 북방정책과 거란’



3
(始皇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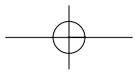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匈奴族)

4
(五胡)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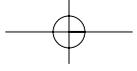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五胡十六國) 439 ,

14) (五胡) - (匈奴) (羯族),
(鮮卑族), (氐族) (羌族)

13) (雪峰書院) - 19 (1564) 가
(三賢祠)



(拓跋部)가
(北魏) ,
(漢族) (南北
(文帝) (陽堅) (隋) .
(契丹 -)
(東胡) . 5
(遼河 -)
100
(唐高祖) (李淵) 가 30
가
290
가
, 8
, 13
, 8
, 8 가 8 가
5 1 12
44
200
56 가
(漢族) 94% (耶律阿保機) . 10 ,



가 25 (942) 10 ,
50 .

“ 가,
.”

(萬夫橋)
가

,
,
,
가
,
,
,
가
,
,
.

(訓要十條) ,

‘ 가
,
.

가
.
(光軍

(西京 -)
司) 30 ,

. . .

,
. 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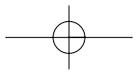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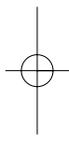
가
. 4 (982)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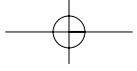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
,
,
. 983 6

(聖宗)
가

,
,
가 . 가

993 80 1





(康兆) · (楊規) · (姜邯贊)
(姜民瞻)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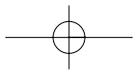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거란의 2차 침입과 3차 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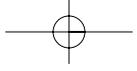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1 12 (993)

1
, 1
,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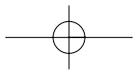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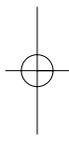
1
,
,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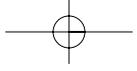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가 ,
 1 가
 가
 2
 가
 2
 3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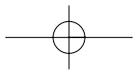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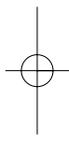
(江東) 8 ¹⁵⁾
 1 가
 8
 가 8
 8
 9 (1018),
 (蕭排押)
 15) 8 (江東八城) -
 6 , 1999
 가 ' 100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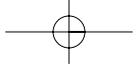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가
 1
 (聖宗) 982
 (定安國)
 991
 (威寇) (振化) (來遠)
 3
 (成宗) 5 (986)
 (蕭恒德)¹⁶⁾
 80 993 ()
 16) (蕭恒德) - (蕭遜寧)
 (字)

12)
 가
 5 ,
 8
 10 ,
 (侍中) (朴良柔)
 (內史侍郎) (門下侍郎)
 (崔亮)
 (安北府) 가
 (蓬山郡)
 (給事中) (尹庶顔)
 가
 가 ,





가 , 가

”
,

“
(嘉州) (松城) ,

가

·
,

가

·
,

?”

가

가

가

(民官御事)

(李知白)

“ (聖祖)¹⁷⁾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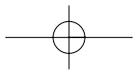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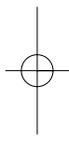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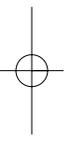
“
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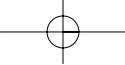
가

(謙

가

17) (聖祖) -





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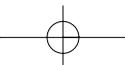
‘적장과의 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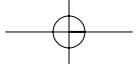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가
(安戒鎭)
(中郎將) (大道秀) (郎將)
(庾方)

(閣門舍人) (張瑩)
“ ”

“ 가 가 가 ”





가?”

.80

가

“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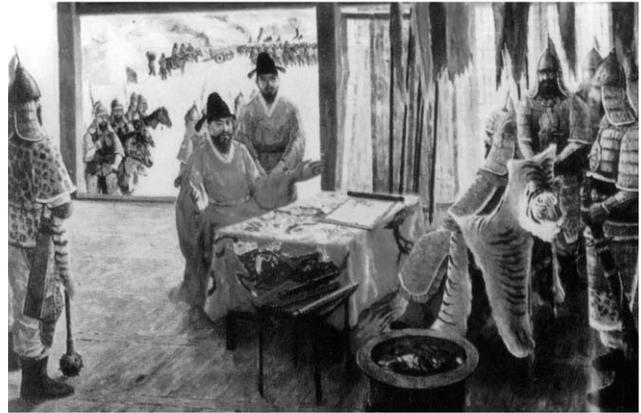
가

“

”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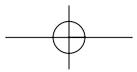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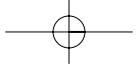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 서희의 구국담판도

가

가

가





가 280

가 .
가 ,

가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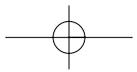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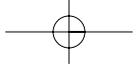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가

가 .”

가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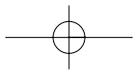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북진 개척에 나선 서희’



80

(大廟) 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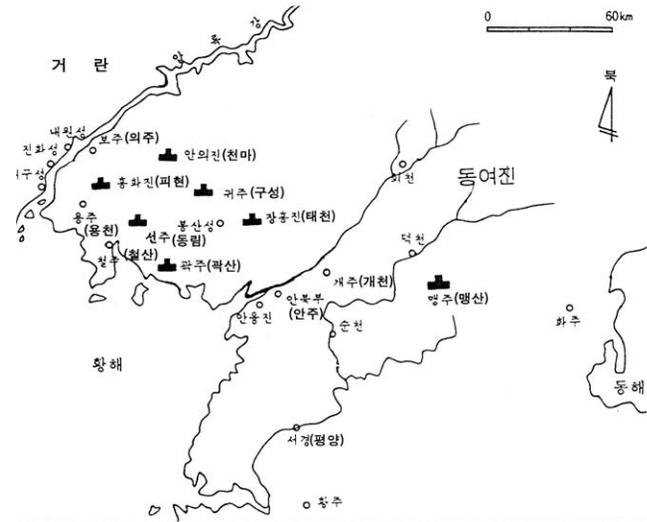


▲ 서희선생이 쌓은 8성 중 하나인 통주성(동월산성)

3

가

가



▲ 서희가 축성한 성곽분포도

994 (13)

가

6 (江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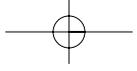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六州)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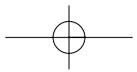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가
 (龜州) (長興) · (歸化) (郭州) ·
 가
 (興化) (安義) · (宣州) (孟州)
 3
 , 280
 가
 2
 , 가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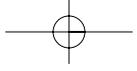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長興鎮) -
 (歸化鎮) -
 (安義鎮) -
 (興化鎮) -

(郭州) -
 (龜州) -
 (宣州) -
 (孟州) -

가,
 가 2 3
 가

19) 8 () 「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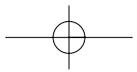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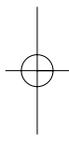


‘고려의 큰별이 지다’



15
 3
 가 (開國寺) 가
 (御衣)
 1 (998) 7
 27 , 55

(腦原茶) , (大茶) 10 ,
 (象
 頭山) (章威公)
 가 (太保內史
 令) (三司) 가
 가 ,
 18 (1027),
 , 2 (1033) (太師)
 가 가
 가
 80 가
 가
 80
 가
 가





▲ 서희선생 기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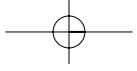
가

가

가

가

가



▲ 서희선생 묘 (여주군 산북면 후리)

5

2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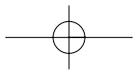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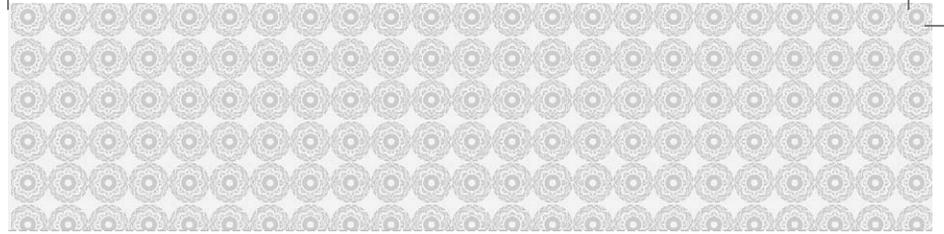
가

가

1965

가





서희선생 약력

942(태조25)	- 이천시 부발읍 효양산에서 내의령(內議令) 서필(徐弼)의 아들로 태어나다.
960년(광종11, 18세)	- 갑과에 급제, 광평원외랑(廣評員外郎)이 되다.
972년(광종23, 31세)	- 내의시랑(內議侍郎)으로 사신이 되어 송나라에 가다. 송의 태조가 검교병부상서(檢校兵部尙書)의 벼슬을 내림.
983년(성종2, 42세)	- 좌승(佐丞)을 거쳐 병관어사(兵官御事)가 됨. - 영명사를 찾아가 놀이를 즐기려던 성종을 바른 말로 간하여 내사시랑(內史侍郎)으로 승진.
993년(성종12, 52세)	- 거란의 침입에 대비, 중군사(中軍使)가 되어 국경을 수비. - 거란의 침입으로 성종 임금의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맺으려하자 싸울 것을 주장, 적장 소항덕과의 담판으로 80만 대군을 물러 가도록 함.
994(성종13)~ 996(성종16)	- 북진개척에 나서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8성을 쌓음. 이때부터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이르다. -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으로 승진
998년(목종1, 57세)	- 7월 27일 별세하여 국장의 예로 여주군 금사면 후리 상두산에 장사
1027년(현종18)	- 성종묘정에 배향
1033년(덕종2)	- 태사(太師)를 추증
1564년(조선 명종19)	- 이천 설봉서원에 제향

서희선생 관련사료

1) 고려의 종묘에 모신 서희의 위패

현종 18년(1027년)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 성종 묘정(廟庭)에 최승로(崔承老), 최량(崔亮), 이지백(李知白), 이몽유(李夢游)와 함께 태사 내사령 서희의 위패를 모셨다.¹⁾

서희가 돌아가신 뒤에도 요나라와의 외교에서는 때때로 서희와 소손녕 간의 담판을 상기시켜 고려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가 있었다. 선종 5년(1088) 9월, 태복소경 김선석을 요나라에 보내서 각장(榷場, 국가가 교역을 허가하고 전매 이익을 보는 곳)을 없애줄 것을 청했는데, 김선석이 가지고 간 표문에 '세 번 우려 청했으나 들어 주지 않으시니 비록 번거롭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이 두렵지만 어찌 우리가 바라는 바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킬 수 있겠습니까. ... 그 때 배신 서희가 경계를 말아 관할하고, 우수 소손녕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상의하여 각각 양쪽 경계마다 여러 성을 나누어 쌓게 되었습니다...²⁾ 고 한 것을 보면 서희가 돌아가시고 9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효력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서희

의정부가 예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리기를,

"고려 왕조(高麗王朝)의 태사 개국 무열공(太師開國武烈公) 배현경(裴玄慶)·총렬공(忠烈公) 홍유(洪儒)·무공공(武恭公) 복지겸(卜智謙)·장절공(莊節公) 신승겸(申崇

謙) 등 4인은 모두 <고려> 태조(太祖)를 추대하여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1등 공신(一等功臣)이 되었습니다. ... 태조와 함께 배향(配享)되었습니다.

태사 내사령 장위공(太師內史令章威公) 서희(徐熙)는 거란(契丹)의 소손녕(蕭遜寧)이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다고 성언(聲言)하며 침입하였을 때 성종(成宗)이 서경(西京)이북의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였고, 또 서경의 창고(倉庫)에 있는 곡식을 풀어 대동강(大同江)에 던져 버리고자 하였으나, 서희가 불가함을 여러 차례 말하고는 자청하여 소손녕(蕭遜寧)의 진영(陣營)에 가서 거듭 논설하여 힐난(詰難)하니, 그 말하는 기품(氣品)이 강개하였으므로 소손녕이 강제로 하지 못할 것을 알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으며, 또 (서희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진(女眞)을 쫓아내고 장흥(長興)·귀화(歸化) 등지에 성을 쌓았으므로 성종과 함께 배향(配享)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각 왕대(王代)에 배향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컨대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 때 함께 제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³⁾

3) 조선시대 기타 사서에 나타난 서희

① 동국통감(東國通鑑)에 나타난 서희

...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나라에 구준(寇準)과 부필(富弼)이 있는 것만 알고 고려에도 서희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모른다. 거란은 그 강력한 병력을 믿고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봉산군을 깨트리고, 선봉군을 사로잡아 크게 성세를 떨치며 공갈협박으로 항복을 강요하였다. 성종은 서경에 납시었다가 급히 개성으로 돌아오니 여러 신하들

1) 『고려사』 5권, 세기5, 현종2. 『고려사』 60권, 지14,禮2

2) 『고려사』 권10, 선종 5년(1088) 9월

3) 『단종실록』 즉위년 12월 13일.

이 의논을 올림에, 어떤 이는 항복하자 하였고 어떤 이는 땅을 주고자 하였다.

성종이 땅을 갈라주자는 의논에 따르려고 하여 그 계획이 크게 잘못되었는데도 신하들 가운데 감히 반론하는 사람이 없었다. 서희는 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힘써 역설하며 한번 싸우고자 하였으니, 바로 구준(寇準)이 황제에게 몸소 정벌하도록 권한 것과 같은 계획이다. 또한 서희는 사신으로 거란에 나가 예로서 대항하여 굽히지 않으니, 포악하고 사나운 오랑캐도 놀래고 감동되어 끝내 화친을 맺었으니, 봉명사신으로서의 법도를 지키는 또한 어찌 부필(富弼)만 못하겠는가? 당시에 만약 서희의 계획이 없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절령 이복 땅을 우리가 다시 보유할 수 있었겠는가?⁴⁾

②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서희

문종 2년(1452)에 고려의 후예 왕순례를 찾아 제사를 맡아 지내게 하고, 사당의 이름을 송의전이라 하였으며, 왕순례를 부사로 삼았다. 복지경, 홍유, 신송겸, 유금필, 배헌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 등을 배향하였다.⁵⁾

③ 동사강목(東史綱目)에 나타난 서희(徐熙)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살펴보니 “...만약 고려가 몇 년 동안 국력을 길러 왕성한 기세를 이용하여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군사를 보내 우리 옛땅을 돌려달라고 요구 하였다면, 거란이 그 형세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 뒤 소손녕이 침입했을 때, 서희가 ‘귀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경계 안에 있는데, 어찌 침식하였다고 하는가?’ 라고 하자, 소손녕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철수하였다. 하물며 거란이 처음 그 땅을 얻었던 때는 훨씬 더 유리했었을 것이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물러나 조그마한 땅덩이만 지키면서 천하의 약한 나라가 되었고, 새장 속에 새나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의 기풍도 좀스럽게 되어 버렸다. 아! 이 또한 운명이 아닌가”라고 하였다.⁶⁾

최씨는 “소손녕이 침입하여 봉산을 격파하고 선봉을 사로잡아 크게 위력을 떨치니, 성종은 다급하게 도성으로 돌아가 국토를 떼어 주자는 의논을 따르려 하였는데, 서희가 잘못된 점을 따져 그들과 한 번 싸우기를 원하였으니 곧 구준(寇準)이 주장한 친정책(親征策)이요, 사신 갔을 때 뜻을 굽히지 않자 강한 오랑캐가 두려워 떨고 마침내 화친을 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어찌 부필(富弼)이 주장한 병로책(聘虜策)만 못하겠는가? 당시 만약 서희가 없었더라면 절령 이복을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책을 지은 안정복의 평** : 먼저 싸운 뒤 화친을 요구해야 화친이 성립된다. 만약 그 기세만 보고 놀래 화친만 하려고 하면, 적은 우리를 끝없이 놀리고 업신여겨 깔볼 것이다. 그 때 만약 대도시의 승리와 서희의 굴복하지 않는 의기가 없었더라면, 화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적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느라 갖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니, 이 일은 후세가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하다).⁷⁾

유씨는 “거란이 고려를 대할 때 왜 이렇게 교제상의 예절을 단호하고 엄하게 할까? 고려가 거란을 섬길 때는 대개 서희, 강감찬 같은 사람들이 있어 기발한 계책을 세워 승리를 제압하여, 먼저 군대를 쳐부수고 난 뒤 사신 교환을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해, 후세가 덕을 본 것이다. 그러나 말엽에 이르러 신하로서 몽고를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 하지 않고 머리만 조아리

4) 『동국통감』권 14, 고려기, 성종 문의왕, 기사 12년조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마전군(麻田郡) - 崇義殿

6) 『동사강목』권6상, 태조 25년 10월.

7) 『동사강목』권6하, 성종 갑오 13년.

8) 유개(俞棨) : 조선 중기 사람. 『麗史提綱』등을 지었다.

고 무릎만 굽혀 우선 당장 눈앞의 일만 보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몽고가 우리를 대할 때도 종이나 노예를 대하듯 하여, 사신이 하나 오기만 하면 온갖 것을 다 요구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고 하였다.⁹⁾

평장사 벼슬을 한 최자(崔滋)가 돌아가셨다. …그가 지은 『속 파한집』 서문에서 문학에 뛰어난 우리나라 선비들을 차례대로 말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학문에 나아가 깨치면서 어질고 영특한 사람들이 나오곤 했다. 광종이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했는데, 그때는 왕용, 조익, 서희, 김책 같은 선비들이 가장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하였다.¹⁰⁾

④ 『휘찬여사(彙纂麗史)』

역사기록자는 논한다. 나라가 융성할 때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내는 큰 집안이 있어서 명예와 복록으로 한 대의 으뜸가는 공신이 있었다. 서필, 서희, 서눌 세 사람이 대를 이어 재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부자와 비교해 볼 때 그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고 어질고 후덕함이 이길보(李吉甫: 당나라 덕종 때 반란을 진압한 신하)보다 나았다. 홀로 말을 타고 적진에 가서 한마디 말로 강한 오랑캐를 물리친 장위공 서희의 높은 공은 당나라의 관복양(郭子儀: 당나라 현종 때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고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 汾陽郡王에 봉해졌다)과 송나라 부정공(富鄭公: 송나라 인종 때 富弼을 말하는 것으로 거란의 割地요구를 힘써 반대하였다)도 이에 따르지 못할 것이다. 공정하고, 충성하고, 곧고 밝아 일마다 충성을 다한 것은 그야말로 대신의 품체를 갖추었다고 하겠다.¹¹⁾

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강역고에 “서북로 연혁을 보면 … 소손녕의 군사를 서희가 물리치므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수백리의 땅을 넓혔다 … 압록강 방비가 완비되었다”고 하였다.¹²⁾

⑥ 설봉서원기(雪峰書院記)

이천은 여주와 광주 두 고을 사이에 있는데 … 이 때문에 나름대로 ‘옛사람들은 고을에서 선생이 죽으면 반드시 추모하는 행사를 열어 그의 사당에 제사 지냄으로써 풍속을 올바르게 이끌었다. 우리 마을이라고 어찌 그런 인물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이 고을의 스승과 선비들과 상의하여 그런 인물로서 고려에서는 태보 내사령을 지낸 서공, 조선에서는 징사(徵士)였던 이공, 좌찬성을 지낸 김공을 추대하기로 하였다.

…서공의 이름은 희, 자는 광윤이며, 대대로 이 고을에서 살아온 정민공 서필의 아들이다. …그러니 고려의 사직이 망하지 않은 것이 이 누구의 덕분이겠는가? 또 그 후 공은 여진을 몰아내고 변방에 성곽을 쌓아 삼한의 역조창생이 배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하였다. 벼슬은 삼공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장위인데 고려 왕씨의 사당에 모셔져 지금까지 제사가 이어져 온 것은 행운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9) 『동사강목』 권7 하, 숙종5년.

10) 『동사강목』 권11 상, 원종 2년 7월.

11) 『휘찬여사』 권22, 명신열전 서희(『장위공 서희선생 사료집』 136쪽).

12) 『증보문헌비고』 권15, 여지고(輿地考)3(『장위공 서희선생 사료집』 152~153쪽).

서희선생 찬가

유 달 영 작사
이 흥 열 작곡

씩씩하게



1. 수 - 려 한 산 천 의 - 정 기 를 타 고
2. 구 름 같 은 거 란 의 - 오 랑 캐 들 이 서
3. 서 희 선 생 단 신 으 로 적 건 열 가 서
4. 그 - 용 기 그 슬 기 - 뜨 거 운 충 의



크 나 큰 - 한 인 들 이 여 기 나 시 니
폭 풍 처 럼 휘 - 물 아 처 들 어 올 때
범 - 같 은 소 손 령 을 꾸 짓 고 달 래
만 - 대 에 걸 - 쳐 서 찬 란 하 고 나



드 - 높 다 그 의 이 름 서 회 라 하 네
해 와 달 도 빛 을 잃 고 초 목 도 떨 어
압 - 록 강 저 건 너 로 불 아 쫓 았 네
그 - 정 신 이 어 받 아 태 어 난 우 리



이 민 주 의 영 원 한 - 구 국 의 헛 - 불.
이 나 라 의 - 영 명 이 - 실 닷 - 같 았 네.
여 진 을 - 벌 하 고 팔 성 을 쌓 - 고
고 향 위 해 나 라 위 해 물 불 - 가 리 라.

서희선생 기념사업회 위원명단

명 예 회 장	유승우 이천시장
고 문	김동옥 양정학원 이사장
	김용식 도의원
	김응호 이천시 교육장
	박영신 도의원
	서상일 이천시씨 대종회 회장
	원종성 이천시의회 의장
회 장	유광렬 해강도자 미술관장
	이기범 농협 이천시지부장
	이종구 이천시민장학회장
부 회 장	이상구 이천문화원장
	곽병두 이천시 향토협의회회장
감 사	이경근 설봉신문 사장
	이교선 이천YMCA이사장
	이성근 이천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

추진위원

강신영 사)한국미술협회이천시지부장
 권금자 이천 가정·성폭력상담소장
 권영진 경기업연초생산협동조합장
 문희수 이천청년회의소회장
 박선기 자유총연맹이천시지부장
 박성재 이천시재향군인회장
 박찬병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장
 박희철 이천시약사회장
 부태길 이천경찰서 경찰행정지문위원장
 서광자 이천시문화공보담당관
 서봉하 이천서씨 병사공파종친회장
 석균남 이천시 산림조합장
 송병탁 한국문인협회 이천시지부장
 신현익 이천상공회의소회장
 심덕구 사)한국국악협회 이천시지부장
 우의제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윤동선 사)한국BBS경기도연맹이천시지회장
 윤두현 이천축산업협동조합장
 이권세 이천시 한의사회장
 이규선 이천신문사 편집국장
 이상욱 이천라이온스클럽회장
 이성연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점장
 이영환 사)한국예총이천시지부장

이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장
 이재혁 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장
 이재연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장
 임치환 이천시 수의사회장
 조남철 이천시 지방행정동우회장
 장석일 이천시 의사사회장
 최운학 이천시 의정동우회장
 최창수 이천시치과 의사사회장
 홍봉표 이원회 회장

실무위원

곽수영 경기도이천교육청 장학사
 김선우 이천예총 사무국장
 박희자 이천시청 문화예술팀장
 우귀식 이원회 총무
 이인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진영봉 이천설봉신문 편집국장
 한승남 향토사학자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

초판 발행일 2004년 9월 10일

지은이 / 이인수

발행인 / 이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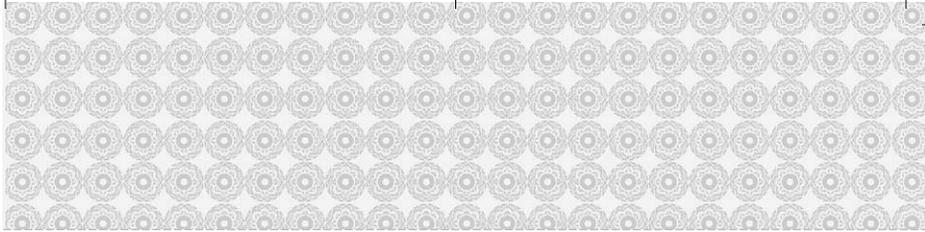
발행처 / 이천문화원, 서희선생기념사업회
(031-635-2316) www.cc2000.or.kr

제작처 / 도서출판 흥익기획 (02-2274-8110)

비매품

© 이인수, 2004

ISBN-89-87738-23-X



서희선생 약력

- | | |
|-------------------------|--|
| 942(태조25) | - 이천시 부발읍 효양산에서 내의령(內議令) 서필(徐弼)의 아들로 태어나다. |
| 960년(광종11,18세) | - 갑과에 급제, 광평원외랑(廣評員外郎)이 되다. |
| 972년(광종23,31세) | - 내의시랑(內議侍郎)으로 사신이 되어 송나라에 가다.
송의 태조가 검교병부상서(檢校兵部尙書)의 벼슬을 내림. |
| 983년(성종2,42세) | - 좌승(佐丞)을 거쳐 병관어사(兵官御事)가 됨.
- 영명사를 찾아가 놀이를 즐기려던 성종을 바른 말로 간하여 내사시랑(內史侍郎)으로 승진. |
| 993년(성종12,52세) | - 거란의 침입에 대비, 중군사(中軍使)가 되어 국경을 수비.
- 거란의 침입으로 성종 임금이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맺으려하자 싸울 것을 주장, 적장 소항덕과의 담판으로 80만 대군을 물러 가도록 함. |
| 994(성종13)~
996(성종16) | - 북진개척에 나서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8성을 쌓음. 이때부터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이르다.
- 태보내사령(太保內史令)으로 승진. |
| 998년(목종1,57세) | - 7월 27일 별세하여 국장의 예로 여주군 금사면 후리 상두산에 장사. |
| 1027년(현종18) | - 성종묘정에 배향 |
| 1033년(덕종2) | - 태사(太師)를 추증 |
| 1564년(조선 명종19) | - 이천 설봉서원에 제향 |

서희선생 관련사료

1) 고려의 종묘에 모신 서희의 위패

현종 18년(1027년) 종묘에 위패를 모실 때 성종 묘정(廟庭)에 최승로(崔承老), 최량(崔亮), 이지백(李知白), 이몽유(李夢游)와 함께 태사 내사령 서희의 위패를 모셨다.¹⁾

서희가 돌아가신 뒤에도 요나라와의 외교에서는 때때로 서희와 소손녕 간의 담판을 상기시켜 고려의 권리를 주장하는 예가 있었다. 선종 5년(1088) 9월, 태복소경 김선석을 요나라에 보내서 각장(榷場, 국가가 교역을 허가하고 전매 이익을 보는 곳)을 없애줄 것을 청했는데, 김선석이 가지고 간 표문에 '세 번 우려 청했으나 들어 주지 않으시니 비록 번거롭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이 두렵지만 어찌 우리가 바라는 바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만 지킬 수 있겠습니까. ... 그 때 배신 서희가 경계를 말아 관할하고, 우수 소손녕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상의하여 각각 양쪽 경계마다 여러 성을 나누어 쌓게 되었습니다...²⁾ 고 한 것을 보면 서희가 돌아가시고 9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효력이 살아 있었던 것이다.

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서희

의정부가 예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리기를,

"고려 왕조(高麗王朝)의 태사 개국 무열공(太師開國武烈公) 배현경(裴玄慶)·총렬공(忠烈公) 홍유(洪儒)·무공공(武恭公) 복지겸(卜智謙)·장절공(莊節公) 신승겸(申崇

謙) 등 4인은 모두 <고려> 태조(太祖)를 추대하여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1등 공신(一等功臣)이 되었습니다. ... 태조와 함께 배향(配享)되었습니다.

태사 내사령 장위공(太師內史令章威公) 서희(徐熙)는 거란(契丹)의 소손녕(蕭遜寧)이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다고 성언(聲言)하며 침입하였을 때 성종(成宗)이 서경(西京)이북의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였고, 또 서경의 창고(倉庫)에 있는 곡식을 풀어 대동강(大同江)에 던져 버리고자 하였으나, 서희가 불가함을 여러 차례 말하고는 자청하여 소손녕(蕭遜寧)의 진영(陣營)에 가서 거듭 논설하여 힐난(詰難)하니, 그 말하는 기품(氣品)이 강개하였으므로 소손녕이 강제로 하지 못할 것을 알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으며, 또 (서희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진(女眞)을 쫓아내고 장흥(長興)·귀화(歸化) 등지에 성을 쌓았으므로 성종과 함께 배향(配享)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각 왕대(王代)에 배향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컨대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 때 함께 제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³⁾

3) 조선시대 기타 사서에 나타난 서희

① 동국통감(東國通鑑)에 나타난 서희

...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나라에 구준(寇準)과 부필(富弼)이 있는 것만 알고 고려에도 서희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모른다. 거란은 그 강력한 병력을 믿고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봉산군을 깨트리고, 선봉군을 사로잡아 크게 성세를 떨치며 공갈협박으로 항복을 강요하였다. 성종은 서경에 납시었다가 급히 개성으로 돌아오니 여러 신하들

1) 『고려사』 5권, 세기5, 현종2. 『고려사』 60권, 지14,禮2

2) 『고려사』 권10, 선종 5년(1088) 9월

3) 『단종실록』 즉위년 12월 13일.

이 의논을 올림에, 어떤 이는 항복하자 하였고 어떤 이는 땅을 주고자 하였다.

성종이 땅을 갈라주자는 의논에 따르려고 하여 그 계획이 크게 잘못되었는데도 신하들 가운데 감히 반론하는 사람이 없었다. 서희는 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힘써 역설하며 한번 싸우고자 하였으니, 바로 구준(寇準)이 황제에게 몸소 정벌하도록 권한 것과 같은 계획이다. 또한 서희는 사신으로 거란에 나가 예로서 대항하여 굽히지 않으니, 포악하고 사나운 오랑캐도 놀래고 감동되어 끝내 화친을 맺었으니, 봉명사신으로서의 법도를 지키는 또한 어찌 부필(富弼)만 못하겠는가? 당시에 만약 서희의 계획이 없어서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절령 이복 땅을 우리가 다시 보유할 수 있었겠는가?⁴⁾

②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서희

문종 2년(1452)에 고려의 후예 왕순례를 찾아 제사를 맡아 지내게 하고, 사당의 이름을 송의전이라 하였으며, 왕순례를 부사로 삼았다. 복지경, 홍유, 신송겸, 유금필, 배현경,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김취려, 조충, 김방경, 안우, 이방실, 김득배, 정몽주 등을 배향하였다.⁵⁾

③ 동사강목(東史綱目)에 나타난 서희(徐熙)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살펴보니 “...만약 고려가 몇 년 동안 국력을 길러 왕성한 기세를 이용하여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군사를 보내 우리 옛땅을 돌려달라고 요구 하였다면, 거란이 그 형세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 뒤 소손녕이 침입했을 때, 서희가 ‘귀국의 동경도 모두 우리 경계 안에 있는데, 어찌 침식하였다고 하는가?’ 라고 하자, 소손녕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철수하였다. 하물며 거란이 처음 그 땅을 얻었던 때는 훨씬 더 유리했었을 것이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물러나 조그마한 땅덩이만 지키면서 천하의 약한 나라가 되었고, 새장 속에 새나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의 기풍도 좀스럽게 되어 버렸다. 아! 이 또한 운명이 아닌가”라고 하였다.⁶⁾

최씨는 “소손녕이 침입하여 봉산을 격파하고 선봉을 사로잡아 크게 위력을 떨치니, 성종은 다급하게 도성으로 돌아가 국토를 떼어 주자는 의논을 따르려 하였는데, 서희가 잘못된 점을 따져 그들과 한 번 싸우기를 원하였으니 곧 구준(寇準)이 주장한 친정책(親征策)이요, 사신 갔을 때 뜻을 굽히지 않자 강한 오랑캐가 두려워 떨고 마침내 화친을 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어찌 부필(富弼)이 주장한 병로책(聘虜策)만 못하겠는가? 당시 만약 서희가 없었더라면 절령 이복을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책을 지은 안정복의 평** : 먼저 싸운 뒤 화친을 요구해야 화친이 성립된다. 만약 그 기세만 보고 놀래 화친만 하려고 하면, 적은 우리를 끝없이 놀리고 업신여겨 깔볼 것이다. 그 때 만약 대도시의 승리와 서희의 굴복하지 않는 의기가 없었더라면, 화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적의 끝없는 요구를 들어주느라 갖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니, 이 일은 후세가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하다).⁷⁾

유씨는 “거란이 고려를 대할 때 왜 이렇게 교제상의 예절을 단호하고 엄하게 할까? 고려가 거란을 섬길 때는 대개 서희, 강감찬 같은 사람들이 있어 기발한 계책을 세워 승리를 제압하여, 먼저 군대를 쳐부수고 난 뒤 사신 교환을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해, 후세가 덕을 본 것이다. 그러나 말엽에 이르러 신하로서 몽고를 섬기면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 하지 않고 머리만 조아리

4) 『동국통감』권 14, 고려기, 성종 문의왕, 기사 12년조

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마전군(麻田郡) - 崇義殿

6) 『동사강목』권6상, 태조 25년 10월.

7) 『동사강목』권6하, 성종 갑오 13년.

8) 유개(俞棨) : 조선 중기 사람. 『麗史提綱』등을 지었다.

고 무릎만 굽혀 우선 당장 눈앞의 일만 보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몽고가 우리를 대할 때도 종이나 노예를 대하듯 하여, 사신이 하나 오기만 하면 온갖 것을 다 요구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 우리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고 하였다.⁹⁾

평장사 벼슬을 한 최자(崔滋)가 돌아가셨다. …그가 지은 『속 파한집』 서문에서 문학에 뛰어난 우리나라 선비들을 차례대로 말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학문에 나아가 깨치면서 어질고 영특한 사람들이 나오곤 했다. 광종이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했는데, 그때는 왕용, 조익, 서희, 김책 같은 선비들이 가장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 하였다.¹⁰⁾

④ 『휘찬여사(彙纂麗史)』

역사기록자는 논한다. 나라가 융성할 때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내는 큰 집안이 있어서 명예와 복록으로 한 대의 으뜸가는 공신이 있었다. 서필, 서희, 서눌 세 사람이 대를 이어 재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부자와 비교해 볼 때 그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고 어질고 후덕함이 이길보(李吉甫: 당나라 덕종 때 반란을 진압한 신하)보다 나았다. 홀로 말을 타고 적진에 가서 한마디 말로 강한 오랑캐를 물리친 장위공 서희의 높은 공은 당나라의 관분양(郭子儀: 당나라 현종 때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고 이민족의 침임을 막아 汾陽郡王에 봉해졌다)과 송나라 부정공(富鄭公: 송나라 인종 때 富弼을 말하는 것으로 거란의 割地요구를 힘써 반대하였다)도 이에 따르지 못할 것이다. 공정하고, 충성하고, 곧고 밝아 일마다 충성을 다한 것은 그야말로 대신의 품체를 갖추었다고 하겠다.¹¹⁾

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강역고에 “서북로 연혁을 보면 … 소손녕의 군사를 서희가 물리치므로 우리에게 전 화위복이 되어 수백리의 땅을 넓혔다 … 압록강 방비가 완비되었다”고 하였다.¹²⁾

⑥ 설봉서원기(雪峰書院記)

이천은 여주와 광주 두 고을 사이에 있는데 … 이 때문에 나름대로 ‘옛사람들은 고을에서 선생이 죽으면 반드시 추모하는 행사를 열어 그의 사당에 제사 지냄으로써 풍속을 올바르게 이끌었다. 우리 마을이라고 어찌 그런 인물이 없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이 고을의 스승과 선비들과 상의하여 그런 인물로서 고려에서는 태보 내사령을 지낸 서공, 조선에서는 징사(徵士)였던 이공, 좌찬성을 지낸 김공을 추대하기로 하였다.

…서공의 이름은 희, 자는 광윤이며, 대대로 이 고을에서 살아온 정민공 서필의 아들이다. …그러니 고려의 사직이 망하지 않은 것이 이 누구의 덕분이겠는가? 또 그 후 공은 여진을 몰아내고 변방에 성곽을 쌓아 삼한의 역조창생이 배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지낼 수 있게 하였다. 벼슬은 삼공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장위인데 고려 왕씨의 사당에 모셔져 지금까지 제사가 이어져 온 것은 행운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

9) 『동사강목』 권7 하, 숙종5년.

10) 『동사강목』 권11 상, 원종 2년 7월.

11) 『휘찬여사』 권22, 명신열전 서희(『장위공 서희선생 사료집』 136쪽).

12) 『증보문헌비고』 권15, 여지고(輿地考)3(『장위공 서희선생 사료집』 152~153쪽).

서희선생 찬가

유 달 영 작사
이 흥 열 작곡

씩씩하게



1. 수 - 려 한 산 천 의 - 정 기 를 타 고
2. 구 름 같 은 거 란 의 - 오 랑 캐 들 이 서
3. 서 희 선 생 단 신 으 로 적 건 열 가 서
4. 그 - 용 기 그 슬 기 - 뜨 거 운 충 의



크 나 큰 - 한 인 들 이 여 기 나 시 니
폭 풍 처 럼 휘 - 물 아 처 들 어 올 때
범 - 같 은 소 손 령 을 꾸 짓 고 달 래
만 - 대 에 걸 - 쳐 서 찬 란 하 고 나



드 - 높 다 그 의 이 름 서 회 라 하 네
해 와 달 도 빛 을 잃 고 초 목 도 떨 어
압 - 록 강 저 건 너 로 불 아 쫓 았 네
그 - 정 신 이 어 받 아 태 어 난 우 리



이 민 주 의 영 원 한 - 구 국 의 헛 - 불.
이 나 라 의 - 명 명 이 - 실 닷 - 같 았 네.
여 진 을 - 벌 하 고 팔 - 낮 - 같 았 고.
고 향 위 해 나 라 위 해 물 불 - 가 리 라.

서희선생 기념사업회 위원명단

명 예 회 장	유승우 이천시장
고 문	김동옥 양정학원 이사장
	김용식 도의원
	김응호 이천시 교육장
	박영신 도의원
	서상일 이천시씨 대종회 회장
	원종성 이천시의회 의장
회 장	유광렬 해강도자 미술관장
	이기범 농협 이천시지부장
	이종구 이천시민장학회장
	이상구 이천문화원장
부회장	곽병두 이천시 향토협의회회장
	이경근 설봉신문 사장
감 사	이교선 이천YMCA이사장
	이성근 이천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장

추진위원

강신영 사)한국미술협회이천시지부장
 권금자 이천 가정·성폭력상담소장
 권영진 경기업연초생산협동조합장
 문희수 이천청년회의소회장
 박선기 자유총연맹이천시지부장
 박성재 이천시재향군인회장
 박찬병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장
 박희철 이천시약사회장
 부태길 이천경찰서 경찰행정지문위원장
 서광자 이천시문화공보담당관
 서봉하 이천시씨 병사공파종친회장
 석균남 이천시 산림조합장
 송병탁 한국문인협회 이천시지부장
 신현익 이천상공회의소회장
 심덕구 사)한국국악협회 이천시지부장
 우의제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윤동선 사)한국BBS경기도연맹이천시지회장
 윤두현 이천축산업협동조합장
 이권세 이천시 한의사회장
 이규선 이천신문사 편집국장
 이상욱 이천라이온스클럽회장
 이성연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점장
 이영환 사)한국예총이천시지부장

이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장
 이재혁 이천시생활체육협의회장
 이재연 새마을운동이천시지회장
 임치환 이천시 수의사회장
 조남철 이천시 지방행정동우회장
 장석일 이천시의회사회장
 최운학 이천시의정동우회장
 최창수 이천시치과외사회장
 홍봉표 이원회 회장

실무위원

곽수영 경기도이천교육청 장학사
 김선우 이천예총 사무국장
 박희자 이천시청 문화예술팀장
 우귀식 이원회 총무
 이인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진영봉 이천설봉신문 편집국장
 한승남 향토사학자

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획

초판 발행일 2004년 9월 10일

지은이 / 이인수

발행인 / 이상구

발행처 / 이천문화원, 서획선생기념사업회
(031-635-2316) www.cc2000.or.kr

제작처 / 도서출판 흥익기획 (02-2274-8110)

비매품

© 이인수, 2004

ISBN-89-87738-23-X